

회복과 치유

섬김의 교회를 방문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점심 친교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소식 10월 결실의 달

1. **결실의 달** 한 몸 된 교회로 사역하는 공동체로 열매를 맺으며 개인과 가정의 삶이 변화되도록 노력합니다.
2. **선교 주간** 복음 전파를 위해 헌신하는 선교자를 위해 기도하며, 치유가 필요한 주변의 영혼을 인도하도록 힘씁니다.
3. **연합예배** 금주 금요 찬양예배는 주찬양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27일)**는 주찬양 교회에서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5. **미국 사회** 미국 대통령선거와 워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6. **찬송 이야기 문서전도** 매주 목요일판 '교차로'에 복음메시지가 실리고 있습니다.
7. **나눔과 교제** 식사와 함께 친교, 축복의 시간을 함께 가집니다.

10월 예배안내 구민 집사

10월 사역

성장/성숙 주간(13-19) 연합찬양예배(살롬교회 18) 소금/빛 된 주간(20-26) 연합찬양예배(주찬양교회 25) 선교주일/연합예배(주찬양교회 27) 선교주간(27-11/2)

생일축하

교우소식

오정은 집사 한국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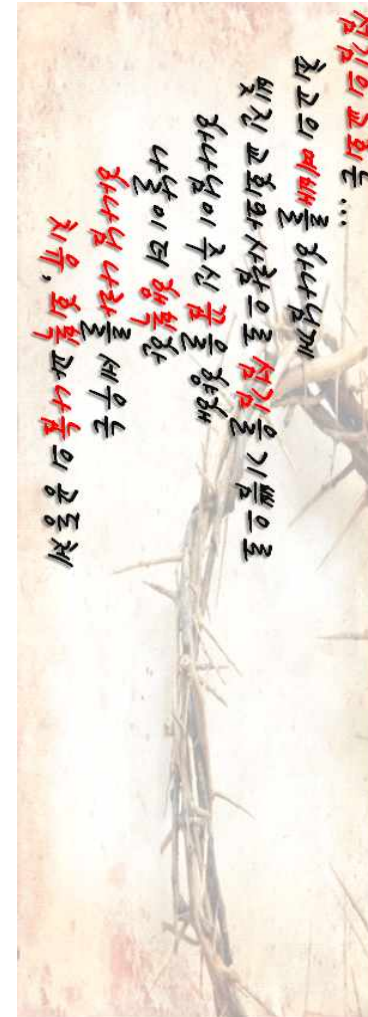
기도제목

1. **성장과 열매:** 2024년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목표들이 이뤄지도록
 2. **영성:** 중보기도의 능력을 누리며 생명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3. **가정의 기도 제목:** 사역의 회복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4. **가족:** 영로하신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5. **교육사역:** 방학 중 자녀의 영적성장과 단기선교를 위해
 6. **Oikos 사역:** 소그룹 사역으로 회복과 전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7. **선교지와 선교사:** 네팔/뉴욕(박은주 선교사)
 8. **이웃 교회들과 연합사역:** 살롬교회/주찬양교회/찬송이야기 사역
- 중보기도** 전성우 형제(최선운 집사 동생)의 건강회복, 상담과 치료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소식

선교 소식 (네팔/뉴욕, 박은주 선교사)

1. 뉴욕 문화/봉사/기도 센터를 통해 복음을 받아 들이는 이가 늘도록
2. 사역팀들이 기쁨 속에 복음을 전하며 지지치 않도록
3. 가족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맡은 사역에 충성하도록



주일 예배 기도

- 10/20 김윤경 사모
- 10/27 연합예배
- 11/3 최선운 집사
- 11/10 최아곱 집사

주일봉헌 인도

- 10/20 최아곱/구은강
- 10/27 박진성/최선운
- 11/3 오정은/김훈태
- 11/10 김훈태/오정은

교회위치 Location



800 E. Palatine Rd., Palatine, IL 60074
847) 691-7846
www.churchofservant.com

예배 및 모임안내

- 주일예배 Sunday 12:30 am
- 중고등부 Sunday 11:30 am
(뉴 라이프 교회 Partner Ministry)
- 금요찬양예배 Friday 8:00 pm
- 새벽 경건회 Tue to Fri 6:00 am
Saturday 7:00 am
- 주일 성경공부 Sunday 11:00 am
- 주중 성경공부(zoom) Tue 8:00 pm
- 일대일 제자훈련 Monday 10:00 am

다윗은 사방이 가로막혀 있었다. 그는 왕의 적이었다. 국가적인 수배자로 몰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윗을 숨겨준 사람들까지 모두 살해됐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다윗을 쫓던 사울이 불일을 보러 동굴에 들어갔는데, 수많은 동굴 중에서 하필 다윗이 숨어 있던 동굴로 들어간 것이다.

보통 우리는 이런 우연이 펼쳐지면, 이를 두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선불리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다윗을 따르던 자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다.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거나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시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주님의 방법으로 하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참 많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너무 성급히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한다.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는 유혹이 있다. 고달픈 삶에 기회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라고 착각하기 쉽다.

요나도 하나님 뜻을 거스르고 도망가는데도,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도착하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먼저 명심하고 끊임없이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질문이 바로 이것이다.

"나는 주님의 섭리를 선불리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가?"

환영과 축복

사역과 소식 (교회/교우)

하나님 앞으로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예배 기도 / 김윤경 사모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씀과 결단

성경말씀 마태 11:20-30
"잘 안 될 때에는"
말씀선포 / 김성배 목사
결단의 찬송 /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결단의 기도

헌신과 열매
(봉헌/나눔)

봉헌 최내권/구은강 집사
★봉헌찬송 / 213장, 4절
"나의 생명 드리니"

세상과 삶으로

★찬양 / "나의 안에 거하라"
★축복기도 / 김성배 목사

★ 표는 모두 일어섭니다.

예배시간 10분 전 휴대전화를 끄고, 묵상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금요 찬양 예배

주찬양 교회와 함께
인도: 신정철 목사

